

온라인으로 통한다… 전통시장 동행세일

전북중기청,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소비 진작 위해
도내 78개 전통시장·상점가 참여… VR 전통시장관·온라인 쇼핑 이벤트 등 진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7월 11일까지)에 전북지역 78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가 참여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동행세일 기간 중 전통시장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특별 판매전을 개최하고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 전통시장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북중기청은 동행세일 기간 중 전통시장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특별 판매전을 개최하고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 전통시장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프로그램은 ▲VR(가상현실) 전통시장판 운영 ▲온라인 장보기 & 쇼핑 이벤트 ▲현장 이벤트 ▲전북 특성화시장 특색 이벤트 등이다.

우선 전통시장 대표상품을 한자리 모아 실제 전통시장을 방문한 듯 시장을 둘러보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VR(가상현실) 전통시장판을 운영한다.

VR 전통시장판에는 전북 4곳 전통시장의 15개 제품(전국 61곳, 147개 제품)이 고객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VR 전통시장판 구매 고객에게는 10% 할인쿠폰 제공 및 무료 배송과 함께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최대 20%(온누리상품권 10%, 쿠폰 10%)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VR 전통시장판에서는 코로나19 완화 시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당 시장의 제품과 지역명소 등의 영상 정보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VR 전통시장판은 시장(www.sjjangae.or.kr) 이벤트 페이지에서 둘러 볼 수 있다.

온라인 장보기와 관련해서는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시장, 장바구니, 종량제 담판 등 4곳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배달료 없이 주문 2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전국 130여곳 전통시장, 4천여개 점포). 또한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판 등 10곳의 온라인 전통시장판에서는 최대 60%의 할인 판매 특별전이 펼쳐진다.

현장 이벤트로는 온라인 판매 기반이 없는 상인들을 위한 1억원 규모의 대형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 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에서 당일 5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들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매일 70명씩 총 1,26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는 '매일매일 전통시장과 동행' 이벤트를 실시하고, 행사기간 총 10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대형 가전제품을 주는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핫템 가전을 잡아라 이벤트도 마련했다.

'의류스타일러', '빨래건조기' 등 '핫(Hot)' 기전제품이 주어진다. 응모

방법은 시장(www.sjjangae.or.kr) 폐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북지역 특성화시장에서도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전통시장별 특색 있는 이벤트가 마련된다. 온라인뷰즈 대회 및 온·오프라인 체험행사(군산 구도심 상권활성화), 고객과 함께하는 체험이벤트(전주모래내, 무주반포불), 그리고 고객 감사 판촉 행사(김제시장, 고산미소) 등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윤종우 청장은 "전통시장은 온라인 진출 청결한 시장 만들기, 청결 교육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력중이니,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전통시장을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많이 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신탁 미니스터디 열어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4층 회의실에서 최고를 향한 전북의 인재육성 프로젝트로 신탁부문 임동순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과 함께하는 미니 스터디를 가졌다 고 지난 25일 밝혔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맞춰 소규모로 구성된 미니 스터디는 매월 1회 이상 사업별로 구성해 우수 직원의 사례발표 및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임이다.

이번 스터디에서는 우수사무소 우수 직원 시상과 개정된 법령하에서 최적의 고객 자산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동순 부행장은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 고객중심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협은행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전북농협 노조-코리아모터스

상호 발전 위한 협약 체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북본부(위원장 박병철)는 지난 24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자동차 경쟁비 및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는 (유)코리아모터스(대표 나정환)와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농협 노동조합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상호 이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동반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뤄졌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코리아모터스는 전북농협 노동조합 조합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자동차 경사 15% 할인, 타이어 20~50% 할인,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병철 위원장은 병원 리조트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약과 '워리밸 앱' 프로그램 실시, 각종 동호회 활성화 등을 통해 조합원의 저녁이 있는 삶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코리아모터스와의 협약을 통해 농협 임직원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활성화시키고 협력사업을 통한 상호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야영장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덕유대야영장 야영객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영문화 확산과 함께 텐트 안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본격적인 여름 캠핑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야영객 스스로 예방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경보기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은 텐트 내 밀폐된 공간에서 속불,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으로 인해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텐트 내 온도 유지를 위해 부탄가스를 연료로 쓰는 온수 매트 사용에 따른 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무소는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500대를 구매하여 대여를 원하는 야영객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촌진흥청은 어름 갑자 수확철을 맞아 지난 25일 원주군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신品种 전시포에서 어린이 갑자 수확 체험 행사를 열었다.

흙 파보니 감자가 '옹기종기'

농진청, 어린이 갑자수확 체험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어름 갑자 수확철을 맞아 지난 25일 원주군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신品种 전시포에서 어린이 갑자 수확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현 예방을 위해 참여 어린이 40여 명 모두 발열 기침, 인후통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행사 내내 마

스크도 착용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감자를 직접 캐보고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새 품종 '네비', '골든볼' 감자를 쟁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은 인솔한 전주 혁신도시 도립민족이집 박수경 원장은 "모처럼 햇살이 좋은 이외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표정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 활동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체험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흙을 파보니 감자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신기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감자 키우고 싶어요"라며 즐거워했다.

/김윤상기자

찾아가는 직업훈련 본격 착수

전주상의 전북인자위, 국민 내일배움카드 특화 본격 추진

고용위기지역·위기산업 종사자 등 600명에 맞춤형 지원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우범기) 전리북도 정무부지사, 문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하 회장)가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 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을 본격 추진해 고용 위기지역 및 위기산업 종사자 등 600명에 이·전직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지원한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찾아가는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1차 과정개발 분과위원회를 열고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우수 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을 선정, 승인했다.

전북인자위에서 2021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해소 등을 위해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유지 및 이·전직 등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고 희망하는 훈련을 수시로 발굴하고, 빌려주고 공급·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위기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훈련과 타 기업으로의 이·전직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평생 학습에 있는 자영업자 및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창업을 위한 훈련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운방섭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전라북도 경제상황은 위기 속에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 대응과 경기 회복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기관은 이를 위해 다양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찾아가는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의 참여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생계비 대부, 생계비 지원, 훈련 장려금 지원, 취업 성공수당 지원, 유급휴가 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인자위는 특별고용지원업

개 분야에서 성장성이 있는 32개소를 선정해 기업별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통합지원사업은 도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공동 프로모션, 오프라인 판로개척 프로모션 등 통합 마케팅을 지원해 도내 농식품기업의 대외 인지도 확대와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판로다iversification를 도모한다.

전북비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도내 농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기업 발굴에 집중하고,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농식품기업의 성장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처부가 각 지역 특화사업 분야 육성을 위해 공동한 사업으로, 전북비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농생명·소재·식품산업 뉴딜촉진을 위한 사업화 토털패키지 지원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약 5억원 규모로 온라인 공동 마케팅, 오프라인 판로개척 프로모션 등 도내 우수 농식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 개별맞춤형 지원사업은 수출기업, 통합제작자 지원, 국내외 인증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온라인 마케팅지원, 흡수광경 프로모션 지원, 기업 홍보 지원 등 7

/김윤상 기자